

# 12월 17일 뉴스 종합 정리

2008년 12월 17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7

ch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미 연준, 기대이상의 금리인하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이틀간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기존 1%에서 0~0.25% 수준으로 대폭 낮췄음. 목표금리의 운용범위를 0.25%에서 제로(0)%까지 제시함으로써 미국은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음. 통상 하루 정도 진행되는 FOMC 회의가 이번엔 이틀간 진행됨에 따라 월가 안팎에선 FOMC 회의에서 다양한 경기부양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음.
뉴욕증시 4~5% `폭등`... `제로` 금리인하 영향 [다우: 8,924.14pt (+ 4.20%)]	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간)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은 미 연준의 대폭적인 기준금리 인하결정에 힘입어 하락 하루만에 폭등세로 돌아섰음. 뉴욕증시는 연준의 금리결정을 앞두고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연준이 기대 이상의 금리인하와 더불어 다양한 유동성 공급방안을 제시하자, 뉴욕증시는 상승폭을 더욱 확대해 반등 하루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음.
주택건설경기 최악..개장전부터 연준 금리인하 예고	미 상무부가 발표한 11월 미국의 신규주택 착공건수는 연율 기준으로 62만 5,000채(계절조정)에 그쳐, 조사가 시작된 195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음. 또 미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국제유가 하락영향으로 1.7%나 하락, 월가의 전망치인 마이너스 1.3~1.4%를 상회했으며, 대공황 무렵인 지난 1932년 1월 1.9% 폭락한 이후 하락폭이 가장 컸음.
유가 하락..`연준 경기 우려` [WTI: \$43.60 (-\$0.91)]	국제 유가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경기에 대한 우려 수위를 높이면서 수요위축 전망으로 하락했음. 1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MYN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91센트(2%) 하락한 43.60달러로 마감했음. 장중에는 46.53까지 올랐다가 42.56달러까지 떨어지는 등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연출했음. 이날 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전망으로 오름세를 탔다가 연준이 경기에 대한 우려 수위를 높이면서 수요감소 전망이 부각돼 하락했음.
유럽증시, FRB 금리인하 기대감에 상승마감	16일 유럽 증시는 각종 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거래를 마감.

제목	주요 내용
[차이나 쇼크] "덜버는 만큼 덜 쓰자" 부자들 도 지갑닫아	공장은 생산을 줄이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으면서 내년을 어떻게 건드릴까 걱정하는 중국 서민의 한숨이 커지고 있음. 서민 뿐 아니라 부유층의 씀씀이도 줄음. 베이징에서는 요즘 자가용 불법 영업과 걸인이 급증.
獨총리 "추가 경기부양 필요"..정책변화 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6일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혀 경제위기에 대한 독일 정부의 대응전략에 변화를 예고. 경제위기에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메르켈 총리가 독일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미진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BOJ,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고조	일본은행(BOJ)이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블룸버그통신이 17일 BOJ 전문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40%는 18, 19일 열리는 회의에서 BOJ가 기준금리를 현재 0.3%에서 더 낮출 것이라고 응답.
"내년 실질성장률 0%"... 日 '減의 겨울'로	일본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 발표한 것보다 1.6%포인트 낮춘 0%로 조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 상당수 민간연구소는 실질성장률이 내년에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측. 일본 경제는 감봉, 감산, 감원 등 '감(減)의 겨울' 한파로 몸살.
"내년 실질성장률 0%"... 日 '減의 겨울'로	일본 정부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내년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월 발표한 것보다 1.6%포인트 낮춘 0%로 조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 상당수 민간연구소는 실질성장률이 내년에 마이너스를 보일 것으로 예측. 일본 경제는 감봉, 감산, 감원 등 '감(減)의 겨울' 한파로 몸살.
한국기업평가, 하이닉스 신용등급 하향	한국기업 평가는 실적부진 및 급격한 재무부담 가중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메모리 시황회복이 지연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이닉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종전 A-에서 BBB+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힘. 한기평은 하이닉스 등급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춤.
환율·금리 대세하락 '가닥'..돈 가뭄 해소되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가늠자 역할을 해왔던 환율이 일단 대세하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시중금리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주식시장도 안정을 되찾고 있음.
쌍용차, 17일부터 전공장 가동중단	쌍용차는 최근 판매가 급격히 줄고, 야적장에는 재고가 늘어나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감산을 통한 생산량 조절이 필요한 상황으로 오늘 17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전 공장에 대한 휴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힘.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